

# 자신의 먹을거리 가꾸는 도시 농부

도시 농사는 에너지 소비 ·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인다



‘도시에서 농사를 짓는다’ 고 하면 의아해 할지 모르지만, 도시 농업은 이미 세계적 흐름이다. 전 세계 도시에서 소비되는 먹을거리의 3분의 1을 도시 농업으로 생산하고 있다. 8억 명이 도시 안팎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며, 이 중 6억 명은 자신을 위한 먹을거리를 생산한다.

내 손으로 안전한 먹을거리를 지으며 여가도 활용하고 공동체 문화 조성에도 좋은 도시 농사는 녹색 소비자라면 한 번쯤 검토해야 할 녹색 생활 문화 중 하나이다. 식물의 계절에 나무를 심는 것도 좋지만 베란다 · 우리 마당 · 우리 동네에서 도시 농사를 시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 옥상 · 텃밭 이용해 농산물 생산

도시 농사란 도시 내의 주택가에 흩어진 조각 토지들, 학교나 공장의 유휴지, 건물의 옥상, 가정용 텃밭 등을 이용해 생태적 농법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하는 활동이다.

미국 뉴욕 시에서는 30년 전부터 ‘그린 게릴라’ 라고 불리는 민간 조직이 6백개의 도시 텃밭을 조성했다. 영국 런던에서도 7백개가 넘는 도시 텃밭에 3만명의 시민이 임대 텃밭 농사를 짓고 있으며, 자신의 집 정원에서 농사를 짓는 가구도 상당수다.

일본 도쿄에서는 건물 지하나 옥상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텃밭에서 가꾼 농작물을 팔 수 있는 ‘시민 농원’에 노년층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도시 농업인이 많아져서, 2008년 서울 · 경기 · 인천 등 수도권 주말 농장이 2백30여 곳에 이른다고 한다.

도시 농사를 통해 생산한 먹을거리는 ‘제로 마일 먹을거리 (zero-mile food)’ 라고 부른다. 먹을거리가 1km도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동에 드는 석유를 쓰지 않고,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 가스 배출도 없다.

시장의 먹을거리는 수십km, 수천km 이상 운반돼 엄청난 에너지를 쓴 채소들이 판매된다. 도시 농사는 이러한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인다.

또한 빗물을 저장해 도시 홍수를 예방하고, 산소를 통해 대기 질을 향상시킨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 농사를 통해 가족들이 함께 문화를 즐긴다는 것이다.

텃밭을 경작하면 가족들이 생명을 매개로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식생활도 개선할 수 있다.



## 도시 농사의 두 가지 유형

도시 농사에 공감하는 사람은 다음의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해 도전해 볼 수 있다.

첫째 적극적인 농사 참여다.

이 유형은 '도시농부학교'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에서 농사 짓는 법을 배우고, 뜻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정보도 교류하면서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많은 도시 농부학교에서는 텃밭에서 농사 짓는 방법을 가르치고, '상자 텃밭' 보급 및 '지렁이 분양 사업'을 하고 있다.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지렁이에게 주어 분변토를 만들고, 그것이 상자 텃밭의 거름이 되고 영양분으로 공급돼 채소 키우는 법 등을 공유한다.



현재 도시농부학교는 전국귀농운동본부의 '도시농부학교',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의 '인천도시농부학교', 경기시흥시의 '연두농부학교', 대전의 '대전도시농부학교' 등 많은 지방 자치 단체와 시민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 가능하다. 2010년 '(사)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에서는 서울과 경기도에서 상자 텃밭 무료 보급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둘째 소박한 취미 참여를 들 수 있다. 이 유형은 본격적인 농사보다는 옥상 정원, 베란다 정원, 베란다 채소 키우기 등 원예나 취미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최근 실내의 생활 공간을 활용한 농업과 정원 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해 좁은 공간에서 작물을 기를 수 있는 텃밭 용기, 채소 전용 재배기 등 '생활공감녹색기술'로 불리는 다양한 용기가 시판되고 있다.

또한 베란다 채소 키우기는 차광 정도에 따라 다른 식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차광이 50%일 때 재배 가능한 작물은 부추·엔다이브·상추·썩갓·청경채·적근대·겨자채가 있으며, 70%일 때는 부추·상추·썩갓·청경채가 있다. 차광이 90%일 때는 부추·생강을 재배할 수 있다.



## 녹색 소비 안목을 키우는 체험 활동

도시에서 농사를 짓는 것은 자동차 매연과 도시 공해로 위험하며 수익보다 비용이 더 든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도시 농사는 도시인들에게 땀 흘리는 농사 체험과 휴식, 가족에게 자연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실제로 지역 사회에 공공 텃밭이 늘수록 주민이 이웃과 지역에 더 큰 애정을 가지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미국 뉴욕 주에서는 공공 텃밭을 통해 범죄 예방 효과를 보기도 했다.

무엇보다 도시 농사는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 체험 활동이다. 소비자와 생산자는 분리된 존재

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도시 농부가 바로 생산자이자 녹색 소비자이기도 하다.

■ 글/배소영(한국소비자원 정책개발팀·박사(소비자학))

■ 사진 제공/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 도시 농사 보급 관련 단체

- 전국귀농운동본부 도시농부학교 : (031)408-4080  
<http://211.115.218.173/>
-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도시농부학교 : (032)201-4549  
<http://cafe.naver.com/dosinongup>
- 경기시흥시 연두농부학교 : (031)313-2848  
<http://cafe.daum.net/nongnyu>
- 대전시 대전도시농부학교  
<http://cafe.naver.com/agriculturedj.cafe>
- (사)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 (02)6354-0515  
<http://www.healthyfamily.or.kr/>